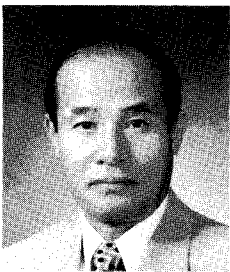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 남덕에스피에프 대표
- 이학박사

□ 일본의 애완용 닭에서 뉴캐슬병 발생

'99년 11월 17일 농림수산성 발표에 의하면 지바현, 가나가와현 이바라기현의 사모, 차보, 오폴계 등의 애완용 닭에서 뉴캐슬병이 발생하였다.

가. 발생현황

발생지	발생회수	사육수수	발생수수	폐사수수
치바현	2	249	203	151
이바라기현	1	82	15	11
가나가와현	1	78	53	34

나. 발생경과

치바현의 한 사육장에서 11월 8일부터 애완용 닭이 원기 소실, 식욕부진, 호흡기증상, 수양성 녹색설사를 보이며 30~40수가 폐사하였다. 11일에 병성감정결과 뉴캐슬병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사육장에서도 11월 상순부터 동일한 증상이 발견되어 뉴캐슬병으로 확인하였다. 이 사육장은 11월 3일 현내에서 개최한 애호가 단체주최의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차보, 오폴계를 앞에서 발생한 사육장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따라서 전시회 출품 애완계의 사육장을 조사한 결과 이바라기현과 가나가와현에서도 뉴캐슬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다. 방역대책

- ① 발생장소 사양애완계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전부 살처분함과 동시에 발생장소의 사육계사 및 주변의 소독처리를 실시
- ② 다른 관계 장소 4도현 33개소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백신접종과 더불어 격리지시를 내리고 경과를 관찰중이다.(JSPD. 99. 12)

□ 질병발생율이 많은 농장에서의 깔짚연속사용

대장균증, 마렙병, 전염성기관지염으로 의심되는 호흡기 질병뿐 아니라 콕시디움증도 깔짚을 연속사용한 농장에서 질병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농장에서는 깔짚연속사용방법을 도입시 미생물 혼합사료의 이용과 마렙병, 뉴캐슬병, 감보로병, 전염성기관지염 등의 일반적인 백신접종과 콕시디움예방제를 병행하여 시도하

였으나 20일령에 콕시디움원충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26일령부터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육성성적은 평균체중, 육성율도 낮고 살모넬라균도 분리되었다. 따라서 오염이 심한 농장에서 깻짚의 연속사용은 질병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생물혼합사료를 사용한 육계의 깻짚연속사용에 따른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산균을 주성분으로 한 미생물 혼합사료를 0.1% 첨가하고 바닥에도 살포하였다. 14일령에 뉴캐슬병, 전염성기관지염혼합백신을 35일령 전후에 항콕시디움제를 투여하였다.

그 결과 성력화, 건조에 의한 결로의 방지 등이점이 있었으나 포도상구균증과 괴사성장염이 발생되었다. 또한 입추전의 콕시디움원충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35일령 이후에 g당 원충수가 10^4 이상으로 항콕시디움제를 투여하여도 출하전의 콕시디움원충수가 감소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여 질병발생율이 높은 농장에서 깻짚의 연속사용방법은 위생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 깻짚연속사용방법의 사례

① 출하(올아우트) ② 계분의 1/3~1/5량의 반출(여름은 1/2) 특히 습기가 많은 부분의 제거 ③ 계사내부의 수세 ④ 경운기로 깻짚은 갈아준다. ⑤ 연속깻짚의 두께는 겨울철 15cm정도, 여름철 5~7cm정도 ⑥ 환기로 암모니아 가스 제거(가스 제거제의 산포) ⑦ 살충제의 분무 ⑧ 입추 ⑨ 미생물제품의 투여(사료첨가)(J.SPO. 99. 12)

□ 가금폐염바이러스

콜로라도주의 칠면조에서 발행한 가금폐염바

이러스는 지금 미네소타주까지 전파되었다. 미네소타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증상으로 기침, 콧물, 눈주위의 머리부분의 부종을 보이며 칠면조계균이 있는 어느 곳이나 50~100% 감염되었고 복합감염시의 폐사율은 30%에 도달하였다. 질병의 발생은 계절적 변동없이 언제나 발생하였다. 가금폐염바이러스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칠면조비기관염(IRD)이나 닭에서는 두부부종증후군(SHS)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분리된 가금폐염바이러스는 다른 지역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차이가 있었으며, 증상도 다른 면이 있었다. 질병의 재발시험에서 미국의 분리된 바이러스를 칠면조에 접종 후 2일이 되는 즉시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에서의 닭의 두부부종증후군은 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 다른 주에서 가금폐염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일년 이상 콜로라도 주에서도 발생이 보고되지는 않았다.(PD. 99. 12)

□ 살모넬라균 백신

세인트루이스의 미건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살모넬라균백신은 비병원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사과정을 변형시킨 살모넬라균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한 것이다. 이러한 백신은 이미 USDA에 등록이 되어 허가가 되어 있다. 허가과정의 시험에서 백신이 접종된 육계의 냉각도계품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것은 없었다. 이와 대조로 백신이 접종 안 된 계군은 한 시험에서는 8%, 다른 시험에서는 12%의 오염율을 보였다.